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오늘밤 8시 U-17월드컵 한국-페루전

‘4강 신화’를 향해... 첫 승 쏜다

수원서 A조 1차전... 배천석·주성환·최진수 공격 주도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대표팀이 ‘세계 4강 신화’의 첫 걸음을 떤다.

에비스타들의 경연장인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이 18일 화려한 막을 올려 9월9일까지 23일간 국내 8개 도시에서 열전에 들어가는 가운데 한국은 첫날 오후 8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페루와 조별리그 A조 1차전(SBS 생중계)을 치른다.

페루를 시작으로 21일 코스타리카, 24일 토고와 맞붙을 한국은 목표를 최소 4강으로 잡았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서 한국의 본선 출전은 이번이 고작 세 번째에 불과하다. 1987년 캐나다 대회 8강이 최고 성적이고, 2003년 핀란드 대회에서는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했다.

하지만 태극전사들은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1983년 멕시코 U-20 월드컵 4강,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룰 기회라며 결의에 차 있다.

한국 대표팀은 사상 첫 4강 진입을 목표로 2005년부터 약 2년7개월 간 대회 준비를 해왔다. 한국은 주로 4-3-3 포메이션을 가동해 왔다.

최전방 원톱에는 배천석(포철공고)이 서고 좌우 측면에 주성환(광양제철고)과 최진수(현대고)가 배치돼 공격을 이끈다. 측면 돌파력이 좋은 설재문(태성고)과 이용재(포철공고)도 언제든지 출격 가능하다.

플레이메이커인 윤빛가람(부경고)을 비롯해 조범석(신갈고), 공격형 미드필더 김정현(현대고)이 중원에 서고 공·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개막을 앞두고 주전 왼쪽 풀백인 김민우(안남고)가 발목 부상으로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돼 수비 라인 구성은 고민이다.

그 동안은 주로 주장 김동철(태성고)과 임종은(현대고)이 중안을 맡고 좌우 풀백 김민우와 윤석영(광양제철고)으로 포백 라인을 구성했다.

박경훈 감독은 양쪽 모두 소화 가능한 윤석영을 왼쪽으로 돌리고 오재석(신갈고)을 오른쪽에 세우는 등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골문은 주전 골키퍼 김승규(울산 현대)가 지킨다.

한국이 4강 도전의 첫 재물로 삼아야 할 페루는 2005년 대회에 개최국 자격으로 처음 참가한 뒤 이번이 두 번째 본선 진출이다. 비록 홈에서 열린 대회에서조차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했지만 당시 경험은 큰 보약이 돼 2회 연속 본

■한국-페루전 예상 선발 라인업 (4-3-3)



선 진출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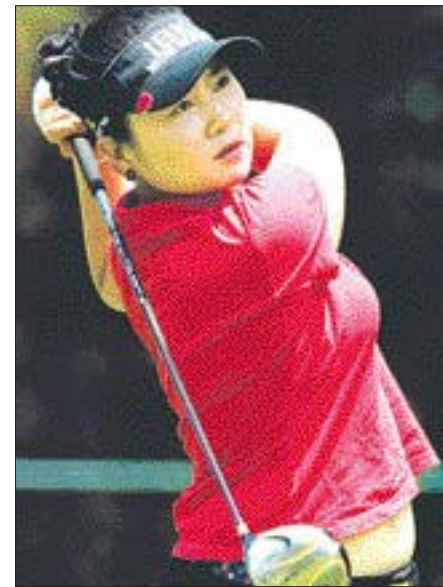
남미예선에서 4위로 본선에 턱걸이 했지만 브라질과 첫 경기에서 2-1로 승리하는 등 이번을 연출하기도 해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한국과는 역대 첫 맞대결이다. 개인기와 골결정력이 뛰어난 공격수 레이몬드 만코(알리안사 리마)가 경계대상 1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배경은〉



〈장정〉

코리언 시스터스 출발 ‘굿 샷’

배경은 2위, 장정·이미나·안시현 4위

LPGA 캐나다오픈 첫날

시즌 다섯 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코리언 시스터스’가 캐나다여자오픈 첫날 순위표 상단을 점령했다.

17일(한국시간) 캐나다 에드먼턴의 로열 메이페어골프장(파71·6천505야드)에서 막을 올린 1라운드에서 한국선수 4명 모두 공동 4위 이내에 포진했다.

단독 선두는 6언더파 65타를 친 로라 디아스(미국)에게 내줬지만 2년차 배경은(22·CJ)이 1타 뒤진 공동2위(5언더파 66타)에 올랐고 장정(27·기업은행), 이미나(26·KTF), 안시현(23)이 4언더파 67타를 때려 4위그룹을 이뤘다.

2005년 2부투어에서 뛰면서 틈틈이 한국 대회에 출전해 상금왕까지 차지했던 배경은은 퍼팅 감각이 살아난 덕에 6개의 버디를 넣어답아 생애 첫 우승을 바라보게 됐다.

올해 슬럼프 기미를 보였던 이미나의 선전도 눈에 띄었다. 2005년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려 캐나다와 인연이 각별한 이미나는 페어웨이는 단 한차례, 그린은 두 차례 밖에 놓치지 않는 안정된 플레이로 보기없이 버디 4개를 뽑아냈다.

에비앙마스터스에서 연장전 패배로 시즌 첫 우승의 기회를 놓친 장정도 보기없이 버디만 4개를 잡아내는 깔끔한 경기 운영으로 우승 경쟁에 합류했다.

버디 6개를 잡아낸 안시현은 전반과 후반 각각 마지막 홀에서 나온 보기가 아쉬웠다.

올해 한국 선수 가운데 맨 먼저 우승을 신고한 김미현(30·KTF)과 ‘매치플레이의 여왕’ 이선화(21·CJ), 문수영(23) 등도 1언더파 70타로 공동17위에 올라 탐색전은 무난하게 치렀다.

하지만 미했던 ‘트리플 크라운’ 달성에도 진한 박세리(30·CJ)는 최악의 퍼팅 난조에 빠져 컷오프 위기에 몰렸다.

14차례 버디 기회를 만들 정도로 샷은 그랜드로 괜찮았던 박세리는 버디는 2개에 그치고 더블보기 1개와 보기 6개를 쏟아내 6오버파 77타로 무너졌다.

공동 128위까지 밀린 박세리는 이날 37타 레나 퍼터를 사용해야 하는 등 그린에 전혀 적응을 못했다.

‘명예회복’에 나선 위성미(18·미국 이름 미셀 위)도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버디는 1개 밖에 잡아내지 못한 채 더블보기 2개와 보기 1개를 곁들여 4오버파 75타를 친 위성미는 공동 106위에 그쳐 톱 통과가 쉽지 않아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미나〉



〈안시현〉



날으는 한마리 나비처럼...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국체조협회연심대회에 참가한 스완준순이 화려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행뉴스



- 18일(토)
- ▲ 메이저리그(LA에인절스-보스턴) (07:55·Xports), 〈휴스턴-샌디에이고〉(10:55·Xports)
 - ▲ 프로야구(삼성-LG)(16:30·KBSN Sports), (KIA-SK)(17:00·MBC ESPN)
 -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야쿠르트)(17:50·SBS스포츠)
 - ▲ FIFA 세계 청소년월드컵(북한-잉글랜드)(13:50·SBS스포츠), 〈대한민국-페루〉(19:45·KBC)
 -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레딩-에버턴)(23:00·MBC ESPN)
- 19일(일)
- ▲ 메이저리그(LA에인절스-보스턴)

- (07:55·Xports)
- ▲ K리그(광주 상무-대구 FC)(13:10·MBC)
 - ▲ FIFA 세계 청소년월드컵(나이지리아-프랑스)(15:50·SBS스포츠)
 - ▲ 프로야구(삼성-LG)(16:30·KBSN Sports), (KIA-SK)(17:00·MBC ESPN)
 -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야쿠르트)(17:50·SBS스포츠)
 - ▲ 07/08 네덜란드리그(헤라클레스알멜로-PSV아인트호벤)(21:20·SBS스포츠)
 -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시티-맨체스터Utd)(21:30·MBC ESPN)
- 20일(월)
-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리버풀-첼시)(00:00·MBC ESPN)
 - ▲ 메이저리그(애리조나-애들랜트)(01:55·Xports)
 - ▲ 07/08 프랑스리그(리스-렌)(02:00·SBS스포츠)

이영표, 위기의 토트넘 내가 구한다

오늘밤 11시 더비 카운티전 출격 준비 완료

프리미어리그 태극전사 만형 이영표(30·토트넘)가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2연패 수렁에 빠진 소속팀을 구해낼 준비를 마쳤다.

이영표는 18일 밤 11시(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 홈구장에서 열릴 더비 카운티와 리그 3차전을 앞두고 출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주 재활훈련을 끝내고 본격적인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한 이영표는 프레시즌 경기에 나서지 못해 경기 감각이 떨어졌지만 최근 컨디션이 크게 좋아졌다.

마틴 윌 토트넘 감독도 지난 16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영표의 몸 상태가 85%까지 올라왔다. 조만간 100%가 될 것”이라고 말해 이영표의 출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최근 풀럼 이적설에 팀 내 입지도 불안한 ‘스나이퍼’ 설기현(28·레딩)과 ‘라이언킹’ 이동국(28·미들즈브러)도 뭔가 보여줘야 할 절박한 시점에 다다랐다.

설기현은 ‘2년차 징크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18일 에버턴과 홈 3차전에서는 득점포가동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쌍둥이 딸 아빠가 된 이동국은 풀럼과 18일 맞붙는 원정 3차전에서 굵아 필요하다는 마친까지.

기존 멤버인 아예그네니 야쿠부와 아스널에서 데려온 제레미 알리아디에르가 두 경기 연속 선발 투톱으로 나선 가운데 최근 이집트 출신 스트라이커 호삼 미도의 추가 영입까지 마쳐 이동국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최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위창수 4언더 공동 26위

PGA 원팀챔피언십 첫날

나상욱 3언더 공동 52위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와 나상욱(23·코브라골프)이 상위 랭커들이 빠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원팀챔피언십 첫날을 중위권에서 시작했다.

위창수는 17일(한국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의 포리스트 오크스골프장(파72·7천311야드)에서 개막한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2개를 곁들이며 4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26위에 이름을 올렸다.

3언더파 69타를 친 나상욱도 순위에서는 공동 52위로 밀렸지만 8언더파 64타로 단독 선두에 나선 윌 매켄지(미국)와 5타차에서 남은 라운드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작년 대회 우승자 데이비스 러브3세(미국)가 신장 결석으로, 최경주(37·나이키골프) 등이 다음 주 시작되는 페덱스컵 첫번째 시리즈인 바클레이스 챔피언십에 대비하기 위해 출전하지 않았지만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144명에게 주어지는 초청장을 받으려는 하위 랭커들의 경쟁은 치열했다.

페덱스 포인트 랭킹 97위로 안정권에 든 위창수는 80%가 넘는 페어웨이 안착률과 그린 적중률로 많은 버디를 잡았다. 10번홀(파4)에서 출발한 위창수는 13번홀(파5)에서 16번홀(파4)까지 4개를 연속 버디를 잡아 기세를 올린 뒤 17번홀(파3)에서 보기를 범해 주춤했다. 1번홀과 5번홀(이상 파4)에서 버디를 보태며 다시 상승세를 탄 위창수는 마지막 9번홀(파5)에서 1타를 잃어 첫 라운드에서 순위를 더 끌어 올리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